

58번째, 농기구이야기

물건을 담는 도구 **‘망태기’**



(망태기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5.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망태기란

망태기는 곡물이나 물건 따위를 담아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지고 나르는 도구이다. ‘망태기’는 ‘망(網)으로 된 자루[袋]’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며, 준말로 ‘망태’라 한다. 예전에도 ‘망태’(『재물보(才物譜)』·『물명고(物名攷)』·『물보(物譜)』·『사류박해(事類博解)』)라 했고, 한자음을 빌려 망대(網袋)라 썼다.

2. 다양한 용도의 망태기

망태기는 가는 새끼나 노를 엮어 만드는데, 대체로 네모꼴이며 폭이 좁고 속이 깊다.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양쪽 끝에 끈을 길게 달아 썼다. 망태기는 물건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낫망태, 달걀망태, 송이망태기 등으로 불리며, 주루막, 꿀망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먼저 낫망태는 호미나 낫과 같은 작은 연장을 망태기에 담아 들에 나갈 때 어깨에 메고 나가기도 하며, 헛간 구석에 균형을 잘 유지한 채 보관하기도 한다.

송이망태기는 경상북도 울진군 산간지방에 채취한 송이를 담을 때 사용한다. 기본적인 망태기의 형태로 한쪽 어깨에 메는 것과 등 뒤에 메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어깨에 메는 망태기의 경우 송이가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을 채취할 때 사용된다. 등 뒤에 메는 망태기는 주루막과 같이 입구를 질 수 있는 형태로, 많은 양의 송이로 잦은 이동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송이망태기는 다른 재질의 가방보다 더 선호하는데, 이는 공기 통풍이 원활하여 송이 고유의 향이 사라지지 않으며 가방에 짓눌려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송이망태기를 ‘줄메기’라 부른다.



사진 1. 낫망태(경기도)



사진 2. 송이망태(경북 울진)

주루막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주둥이에 끈을 달아 입구를 질 수 있게 만들었다. 주둥이의 끈은 아래 양 끝과 연결되어 양쪽 어깨에 멜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늘게 끈 새끼로 촘촘하게 엮어서 만드는데, 오래 사용하기 위해 고리에 칩덩굴이나 왕골 등을 감아 보호한다. 거친 산 속을 이동하거나 잣은 이동 시 안에 있는 약초 등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피나무 껍질로 끈 새끼로 만든 것을 최고로 친다. 주로 산골에서 약초를 캐러 갈 때 필수적으로 메고 다녔다. 그리고 주루막은 지방에 따라 ‘구력’이라고 하였다.



사진 3. 주루막 (©농업박물관)



사진 4. 주루막 주둥이세부(©농업박물관)

꿀망태는 소에 먹일 풀이나 땔감으로 쓸 낙엽이나 검불을 담아 나르는데 사용했다. 새끼로 그물처럼 성글게 망을 떠서 주둥이를 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방에 따라 꿀망태는 ‘갈망태’라고도 했다. 망태기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30~50리터의 부피를 담을 수 있고, 주루막은 이보다 조금 작다. 그러나 크기가 큰 꿀망태는 200리터 가량이 담긴다.

3. 그림 속의 망태기

망태기는 현대의 가방과 같은 용도로 시장을 가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 물건을 담아 이동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그 모습이 담긴 글이나 그림에는 망태기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17세기 조선 후기 문인화가인 윤두서의 그림에서 망태기가 등장한다. 윤두서는 시·

서·화에 두루 능통하였고, 인물화뿐만 아니라 산수화를 비롯한 일반 회화 작품에는 조선 중기 화풍을 바탕으로 전통성이 강한 화풍을 보인다. 그가 그린 그림 중 《나물 캐는 아낙네》, 《밭가는 농부》, 《깊신 삼는 사람》은 모두 일반 백성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서민풍속화로 평가할 수 있다. 나물 캐는 아낙네는 따스한 봄날 들일이 한창인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한 여인은 양손에 망태기와 칼을 든 채 허리를 살짝 굽혀서 나물을 캐고 있다. (그림 1)

18세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망태기가 등장한다. 작품명이 「어물장수」인 이 그림은 한 여인이 생선이 담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오른 쪽 어깨에 채소가 담긴 망태기를 메고 시장가는 길에 할머니와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중 「행상」과 매우 유사하여 김홍도의 영향을 뚜렷하게 감지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망태기를 살펴보면 어깨에 메고 있으며, 가느다란 짚으로 촘촘하게 엮은 것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입구와 바닥이 둥그스름하고 넓은 형태로 둥구미와도 유사해 보인다.(그림 2)



그림 1. 나물 캐는 아낙네
(윤두서《윤씨가보》, 연도미상)



그림 2. 어물장수
(신윤복©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후반)

4. 노래 속의 망태기

우리나라의 노래 속에도 망태기는 등장한다. 조사된 바로는 2개의 노래에서 확인되었다. 망태기의 용도가 물건을 담아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질 수 있는 것으로 농산 물이나 연장 등을 담기도 하고, 소에게 먹일 꿀을 담은 꿀망태나 약초류를 담은 주루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노래 속에서는 물건을 담아 어깨나 등에 메고 가는 농부의 모습을 묘사할 때 등장한다.

꿀망태 목동 / 1938년 / 이화자

꿀망태 둘레 메고 소를 모는 저 목동
고삐를 툭툭 치며 콧노래를 부르다가
이랴 흥 어서가자 정든 님 기대릴라

처녀농군 / 최정자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하나요
꿀망태 등에 메고 이랴 어서가자

【참고문헌】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인병선, 199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 문화』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

박호석, 2004, 『한국의 재래농기구』

울진군 북면·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2005, 『북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

농업박물관, 2012, 『돌고 도는 노래 속 농기구 이야기』 도록